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8

09-10
2016 | Vol. 539

아키타 간토 마쓰리(秋田竿燈まつり)
Photo : Kazuhisa Ishikawa

일한 정상회담

9월 7일 오후 5시 25분경(현지 시간)부터 약 30분간,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일본 측 배석자 :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 한국 측 배석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외)

Photo :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1. 첫머리에 아베 총리는, 작년 말 합의 이후, 일한 관계가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는 점이 매우 기쁘며, 박 대통령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해 '일한 신시대'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 또 9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로,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일한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2. 작년 말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아베 총리는, 양국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점이 중요하며,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출연을 완료했다고 말하고,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일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또, 아베 총리는, 일한의 제반 현안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폭넓은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가자고 했고, 박 대통령은 청소년 교류 및 올림픽에 관한 상호 협력을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3. 북한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8월에 북한이 발사한 SLBM으로 여겨지는 탄도미사일은 중대한 위협이며, 나아가 북한은 9월 5일에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해, 3발 모두 일본의 EEZ 내에 떨어졌다, G20 정상회의 개최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발사를 강행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이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일한미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양 정상은 일한 및 일한미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또, 납치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해와 협력을 얻었다.

4.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을 포함해,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재재판을 계기로 남중국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이 진전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한 외교장관회담

8월 24일(오후 2시15분경부터 약 50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일한중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바, 개요는 다음과 같다(일본 측 배석자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 외, 한국 측 배석자 : 이준규 주일한국대사,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외)

Photo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1. 첫머리에 기시다 외무대신은, 윤 장관의 방일을 환영한 후, 납치, 핵, 미사일 등의 북한을 둘러싼 제반 현안에 대한 대응과 지역의 안보 환경에 비추어 일한 양국 및 일한미 3국의 긴밀한 공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날 열린 일한중 3국 외교장관회의 성공을 축하하며, 일한 양국뿐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

2. 작년 말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기시다 외무대신은, 오늘(24일) 10억 엔의 출연을 위한 각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양 외상은 합의를 계속해서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또, 양 외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

3. 또, 기시다 외무대신은 여러 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사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항의했다.

4. 북한 문제에 대해, 기시다 외무대신은, 오늘(24일) 아침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한이 긴밀히 공조했으면 한다, 북한의 핵 · 미사일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며, 안보 면에서의 대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THAAD 배치 결정에 거듭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양 외상은 일한 및 일한미가 계속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5. 양 외상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이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나가미네 대사 부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 신임 주한일본대사로 서울에 부임했습니다. 서울은 업무상 출장으로 여러 차례 방문 한 적이 있지만, 장기 체재는 처음입니다.
가능한 빨리 한국어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어 공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한국 문화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고자 추석에는 안동 하회마을과 해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일한 관계는 지난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개선의 기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개선된 양국 관계를 한두 걸음이라도 더 진전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대사로서의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한 양국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안정 및 번영을 위해 공헌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양국의 협력 관계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일본과 한국 간의 인적교류,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등을 더욱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양국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 상호 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말씀을 들으며, 저도 일본에 대해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셋째로, 경제 면에서의 일한 협력을 강력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이곳에 나와 있는 일본 기업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또, 아베노믹스의 추진을 위해, 한국 사업가 분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관계자와도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넷째로, 한국 내의 일본 국민에 대해 빈틈없는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진 가장 중요한 이웃입니다.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과제도 놓여있지만, 저는, 양국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과제를 극복하며 폭넓게 협력하는 것만이 서로에게 대국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협력해 나갈 생각이오니 잘 부탁 드립니다.

주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하치오지 잇초 마쓰리

마라톤으로 이어지는 교류

하치오지시의 개요

하치오지시(八王子市)는 도쿄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신주쿠에서 열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시의 약 60%가 녹지며 16개의 1급 하천과 그 대부분의 원류 지역이 있는 도쿄 도내에서도 자연이 풍요로운 도시로서 2015년 4월 도쿄도의 첫 중핵(中核) 시가 되었다. 현재, 인구는 약 56만 명, 21개 대학 등이 있는 학원도시다.

그리고 하치오지시 최대 관광지, 미슐랭 3스타로 평가 받은 다카오잔(高尾山)은 동식물의 보고로 일컬어지며, 사계절 즐길 수 있는 7가지 하이킹 코스에는 연간 약 300만 명에 이르는 등산객이 찾고 있다.

'하치오지 라면', '다카오잔 도로로(산마) 소바' 등 인기 있는 맛집 순례나 역사적 장소인 하치오지 성터(八王子城跡)와 다키야마 성터(滝山城跡) 산책도 추천한다. 또한 8월 초순 경에 이루어지는 전통적 수레와 가마가 볼 만한 축제인 하치오지 마쓰리(八王子まつり), 11월경 하순에는 거리가 황금빛 은행나무로 물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치오지 이초(은행나무) 마쓰리(八王子いちょう祭り)를 비롯해서 연중 수많은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더욱이 미나미오사와(南大沢)에 있는 아웃렛 쇼핑몰 등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하치오지시는 자연, 역사, 문화, 대학, 제조산업 등 자원이 풍부하며 '활력 있고 매력 넘치는 거리' 실현에 임하고 있다.

시흥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두 시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과 문화의 혜택을 받은 곳으로 도시와 고속도로망으로 연결된 수도권의 핵심 도시라는 지리적 환경이 매우 비슷하다. 또한 농업, 산업복합도시라는 공통점 등이 많으며 돈독한 교류를 위해 하치오지시는 9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 7일 시흥

초등학생 독서 감상화전

마라톤 클럽

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교류의 경과

두 도시는 우호교류협정 체결 후 지금까지 직원상호파견 연수 등의 행정교류는 물론, 청소년 · 시니어 · 여자 축구 · 배드민턴이나 마라톤 등 스포츠와 초등학생의 독서 감상화전과 사진전 개최 등 문화 분야에서도 시민 교류를 펼치고 있다.

마라톤으로 이어지는 교류

하치오지를 거점으로 지역 기반의 육상경기클럽 '하치오지 후지모리 소유카이(八王子富士森走友会)'는 1974년 4월 창립하여, 후지도잔(富士登山) 역전 마라톤에서 4번 우승하고, 하치오지유메카이도(八王子夢街道) 역전 마라톤 일반부에서 3번의 우승을 거머쥐는 등 수많은 전력이 있으며, 일본 국내외 대회에 다수 참가하고 있다. 시흥시와의 첫 교류는 2011년 11월 제 9회 스포츠서울 마라톤 대회였다. 시흥시 마라톤 클럽과의 교류, 지역신문사의 취재를 받아 시흥시를 예방했다. 따뜻하게 맞이해 준 시흥시 마라톤 클럽과 함께 대회에 출전했으며, 완주 후에는 시흥시 선수들에 둘러싸여 막걸리와 떡볶이를 먹으며 마라톤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더욱이 교류회에서는 해질녘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조개 구이, 해물 우동 등 일품요리를 먹으며,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시흥 시장에게 하치오지 시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듬해 하치오지시와의 교류를 약속 받았다.

다음 해, 시흥시 마라톤 클럽이 하치오지시를 방문하여 교육장을 예방하고 하치오지 로드 레이스에 출전했다. 그 후 다카오잔 등 하치오지를 관광했고, 교류 친목회에서 두 도시 마라톤 대회 개최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5년 10월 하치오지 후지모리 소유카이는 시흥시를 예방 후, 창조 경제 마라톤 대회에 시흥시 마라톤 클럽 멤버와 함께 출전했다. 서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어 익숙한 얼굴에 언어 장벽도 없어 친목회의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다.

마라톤을 통해 교류하고 있는 하치오지 후지모리 소유카이 대표인 모리야 가즈토시(守屋和利) 씨는 "시흥시에서 스포츠 교류 파견 선수로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감동했다.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마라톤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는 사람과의 국제 교류를 목표로 함께 달리며, 문화 · 역사 등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도 체험

다카오잔 전경

하치오지 마쓰리

시켜주고 싶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선수들 모두가 자신의 친구와 지인에게 전하며, 교류하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교류

내년 2017년에는 하치오지시가 100주년을 맞이한다. 시 전체가 하나되어 이 기념을 축하하며, 하치오지시의 매력을 재인식하고, 이를 차세대로 계승하는 가운데 해외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가 시민의 국제 감각을 기르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한다.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시민의 진정한 교류가 깊어지고, 두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문의할 곳

하치오지시 시민활동추진부 다문화 공생추진과 (한국어 가능)
TEL +81-42-620-7437
하치오지시 산업진흥부 관광과 (일본어만 가능)
TEL +81-42-620-7378
하치오지시 시청 홈페이지 http://www.city.hachioji.tokyo.jp/index.html

(집필: 하치오지시, 협력: CLAIR, Seoul)

하치오지 라면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이 10월 2일(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다.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 2005'의 주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동안 양국 최대 규모의 풀 뿌리 문화교류행사로 성장해 왔다. 12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한일 양국의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해로서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을 테마로 양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무대 공연과 부스 출전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에 이어, 구체적으로는 특별공연으로 '고도(Kodo)'와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합동공연과 J-POP 아티스트 아마쓰키(天月)와 K-POP 걸그룹 에이프리(April)의 특별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 외에, 약60개에 이르는 다양한 부스가 출전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행사장 내에 '한일광장'을 마련하여, 무대에 출연한 단체가 무대 공연 후 브레이크 타임을 활용하여 스트리트 퍼포먼스를 하는 외에, 관람객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10월 2일(일) 10:00~19:30
장소 코엑스 B홀
테마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슬로건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운영위원회
후원 (한국측)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본측)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문의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한국측운영사무국 02-702-7775 **공식 HP** 한일축제한마당 www.omatsuri.kr

올해의 공식 사회자는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후지타 사유리와 오카와 노부코, KBS 최시중, 오언종, 김성근 아나운서가 1부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2,3,4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오프닝 공연으로는 시즈오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6인조 아이돌 퍼포먼스 유닛 '로사리오+크로스' 공연과 함께, 국내 최고의 K-POP 커버댄스 그룹 '아이시어'의 파워풀한 무대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1부 : 공식행사

공식행사의 막을 열 오프닝 축하공연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일본인학교'의 합동공연이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단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2002 FIFA World Cup KOREA / JAPAN ™ 공식 '앤섬' 곡에 참여하고, 공식 콘서트에 출연했던 '북' 예술집단 고도(Kodo)의 합동공연이 특별공연으로 진행된다.

2부 : 즐거운 축제

2부에서는 '즐거운 축제'를 테마로 한국과 일본의 7개 단체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일본의 전통악기인 샤미센 연주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요시다 형제'의 특별공연을 만날 수 있다. 이어 박진감 넘치는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약동', 빛과 하회탈을 멀티미디어와 접목시킨 '광탈' 공연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 '기쿠노카이' 가 일본의 전통 춤 등을 선보이고, 호랑이 춤으로 잘 알려진 '아오모리현 사비시로 도라마이'와 한국무용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상명한오름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3부 : 즐거운 만남

3부 공연에서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90년생 실력파 댄서팀 '나인티스 재팬(The90's JPN)'의 파워 넘치는 춤이 3부의 문을 열고, '레전드 무브먼트'의 화려한 태권도 공연, 일본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코스프레이어의 코스튬 공연이 이어진다. 또 4인조 연주팀 '쿠리코더 콰르테트'와 일본 혼성 듀오 '뷰티플 허밍버드'의 합동공연에 이어, 인디밴드 그룹 '리플렉스'가 3부의 대미를 장식한다.

4부 : 즐기는 우리

4부 무대에서는 이번 축제의 두 번째 특별공연인 '스페셜 콘서트'와 '피날레 공연'이 대미를 장식한다. '스페셜 콘서트'에서는 양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출연해 K-POP과 J-POP을 선보인다. 달콤한 미소년의 모습이 떠오르는 하이톤 보이스가 매력적인 '아마

쓰키(天月)'와 4월의 따뜻함을 노래하는 '에이프릴(April)'의 사랑스러운 무대가 펼쳐진다. '피날레 공연'은 테마에 걸맞게 '요사코이 아리랑' '약동' '가배(길쌈) 놀이' 공연이 감동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의 신명 나는 공연은 행사장을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로 만든다. 한국과 일본 출연진 및 관객, 자원봉사자, 관계자가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체험 프로그램 – 부스 행사

〈체험 & 이벤트 부스〉 〈푸드 & 판매 부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스〉〈기업 부스〉를 적극 유치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에서는 한일광장을 중심으로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우선, 출연단체와 만날 수 있는 워크숍 부스와 스트리트 퍼포먼스가 운영된다. 무대 공연 이후, 브레이크 타임에 일본 전통 매직인 '와즈마'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출연단체가 한일광장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워크숍 부스에서 관람객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JENESYS 2016 일본대학생방한단(한국외교부 초청)이 진행하는 부스에서는 한국이 알고 싶고, 한국인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일본 대학생들이 직접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등 양국 민간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양국의 의상은 물론 다양한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어, 즐거운 축제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푸드 & 판매 부스〉에서는 일본 라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부탄츄', 일본 튀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자카야 아이와'를 시작으로 '미스터 카레' '도쿄빵야', 일본식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는 '레타스'는 물론 '동아오츠카'의 각종 음료 등이 관람객의 발길을 불러 모을 것이다.

Cool Japan!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

일본 외무성의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 2016'의 일환으로 한국 대학생 72명(대학생 68명, 인솔자 4명)이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청년방일단은 주한일본대사관, 주부산총영사관, 주제주총영사관이 각각 에세이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 학생과 각종 행사에서 수상한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한국청년방일단은 '일본 지방의 매력과 지산지소(地産地消 :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라는 테마 아래, 중부지역(미에, 아이치, 나가노, 기후, 도야마)과 홋카이도 등 여러 곳을 방문해 'Cool Japan'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본의 일반 가정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홈스테이, 대학교와 기업 방문, 시라카와고(白川郷) 등 일본의 세계유산 방문, 유카타(浴衣) 입기와 노가쿠(能楽) 체험 등 일본의 전통문화 체험 등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귀국한 후, SNS 등을 통해 일본의 매력을 한국에서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섬과 바다의 노래

나지환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

우측 필자

당신은 눈을 감고 여름을 상상한다. 태양, 매미 울음, 환한 잎사귀들. 이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상한다. 섬나라의 하늘, 도로와 횡단보도, 신사, 고양이가 많은 곳.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름과 일본을 한꺼번에 상상한다. 노을과 함께 산 너머로 희미해지는 쓰르라미 소리, 도시의 열기를 식히는 해양성 기후의 장마, 그리고 절에 앉아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달랠 때, 들려오는 풍경 소리…….
나는 일본의 여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일본에 갔을 때는 항상 겨울이었고 기대하던 신사의 정원에서 나무들은 마르고 죽어있었다. 누군가가 웹에 올린 사진 혹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비 내리는 초록(草綠)의 모습을, 혹은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의 영화에서 굴러다니던 매실의 빛깔을 통해 어렴풋하게 떠올릴 수만 있을 뿐, '일본의 청량함'이 무엇인지 정작 몸으로 느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 여름, JENESYS 2016 한국청년방일단의 단원으로 9박 10일간 일본의 중부지방에 다녀왔다. 산과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이세시마(伊勢志摩), 다테야마(立山) 같은 도시들은 더군다나 여름의 밝고 습한 색채가 곁들여져 '여름의 청량함'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일한문화교류기금 담당자 분께서 버스에서 목적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항상 우리 방일단 일원이 한국과 일본의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섬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 이 중부지방의 매력적인 풍경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풍경을 언젠가 말로, 글로, 사진으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려본다. 그곳에는 햇빛을 되받아 싱그러운 일본 농촌의 들판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그 일본의 들판에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보낸 바 있다. 바로 치요마을에서의 홈스테이다. 해발 고도 2,000미터가 넘는 산지에서의 농촌 풍경은 나

를 압도했다. 어르신들과 함께 농작물을 캐는 체험을 했을 때나, 함께 고헤이모찌(五平餅)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던 시간 속에서 나는 자연과 문화를 한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풍경 속에 나 자신을 두고 왔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형태의 아름다움과 생동감이 일본의 산 깊은 마을에 숨어있었던 것이다.

치요(千代) 마을……. 밤이면 은하수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다. 그 밤, 나와 동료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나섰다. 풀벌레 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 고산의 농촌마을은 어둠에 둘러싸여 칠흑 같았지만, 우리는 카메라의 플래시를 움직이고 삼각대를 조절하고 어르신들을 사이 좋게 세웠다. 그리고 달이 구름을 벗어나는 순간, 두 분의 사진을 박았다.

그렇게 찍은 기념사진을 인쇄해서 두 분께 남겨드리고,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탔다. 정상 회담이 열리는 신비로운 진

주의 섬에서부터, 하얀 잔설로 뒤덮인 무로도(室堂) 평원,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영험한 신과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이세 신궁(伊勢神宮)까지, 평범한 관광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명소들이다. 그러나 누군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곳에 갔다면, 내가 그러했고 방일단인 우리가 그러했듯이 매력에 깊게 빠져들 것이다. 특히 마쓰사카우시로 만든 스키야키, 이세 해산물 찜, 료칸 가이세키 정식 등 중부지방의 각 지역이 가진 매력을 살리고 문화를 살려낸 '지산지소' 정신의 음식을 먹을 때는 황홀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마 반도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에스페란자호에 탔을 때, 난간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작은 섬들을 바라볼때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햇빛의 쾌청함과 바다의 눈부심을 몸으로 느끼며, 그토록 고대하던 '일본 여름의 청량감'을 몸으로 느꼈다. 섬과 바다가 부르는 한 소절의 노래처럼, 처음 듣는 노래에 매혹된 사람처럼, 나는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육지를 바라본다.

온 힘을 기울여 문화재와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일본인들 각각의 노력과, 지자체 및 국가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감탄하며,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풍경의 깊이를 늘려주신 가이드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 나아가 성과보고회를 거치면서 깊은 유대를 가지게 된 학생대표와 부대표를 비롯한 모든 방문단원들의 마음이 서로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보았던 일본의 맛과 재미와 전통과 역사를, 한국에 전달하게 될 것이다.

돈보리 리버크루즈

황금의 지붕배

물과 빛의 도시 오사카
'물의 도시 오사카'와 '오사카 · 빛의 향연'

오사카(大阪)는 일본 혼슈(本州) 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서일본의 경제, 문화 중심지이자 도쿄 다음가는 대도시다. 또한 오사카에는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비행기가 취항하고 있어 서일본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운(水運)을 통해 발전해온 오사카는 과거 '물의 도시'로 불리며, 세계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지형으로서, 강이 도심부를 입구 자(口)로 감싸는 '물의 회랑'이 있다. 이러한 물의 도시 오사카를 부활시키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수변 지역의 활기와 번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강가나 선상에서는 교각의 경관 조명이나, 호안(護岸, 하안이나 제방의 경사면에 설치한 구조물)의 일루미네이션, 녹음의 산책길, 고층 빌딩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거리의 불빛 등 오사카 특유의 경관을 볼 수 있다.

물의 도시 오사카

오사카에서는 바다의 관문인 오사카만부터 '물의 회랑'을 배로 유람할 수 있으며,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USJ), 오사카성(大阪城), 나카노시마(中之島), 도톤보리(道頓堀)를 비롯한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 가운데 물의 도시와 관련된 관광명소인 돈보리 리버워크와 오사카성, 물의 도시 오사카의 상징인 나카노시마를 소개한다.

물의 도시 오사카 페스티벌

나카노시마

물의 도시 오사카의 심볼인 나카노시마는 오사카의 중심지인 우메다(梅田) 근처에 위치한다. 나카노시마는 이름처럼 2개의 강을 끼고 있으며, 동부 지역에는 중요 문화재인 오사카시 중앙공회당과 나카노시마 도서관 같은 역사적인 건축물, 장미원 · 잔디공원이 위치한 나카노시마 공원이 있으며, 사계절 물 · 자연 · 역사를 체감할 수 있다. 앞으로 가을에는 물의 도시 오사카 페스티벌 2016, 겨울에는 OSAKA 빛의 르네상스 2016 등 재미있는 이벤트가 개최된다. 또한 근처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1년 내내 강변에서 식사할 수 있는 '기타하마 테라스'가 있어, 매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서부지역에는 호텔과 국제회의장, 미술관, 고층 빌딩군 같은 문화의 향기와 멋진 거리를 느낄 수 있으며, 밤에도 교량의 조명과 빌딩 야경이 아름다워 나이트 크루즈가 운행되고 있다. 또한 9월에는 수상 레스토랑과 멋진 가게가 위치한 '나카노시마 뱅크스'와 산지 직송의 신선한 바다의 진

미도스지 일루미네이션(작년 모습)

미를 맛볼 수 있는 나카노시마 어항이 리뉴얼 오픈, 이 지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물의 도시 오사카 페스티벌 2016]

강가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나카노시마 오픈 테라스와 클래식 콘서트, 리버 퍼레이드 등 나카노시마 공원을 무대로 강가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매일 개최된다. 특히, 행사 메인 기간에는 선박 이벤트가 펼쳐진다.

개최 일정 : 9월 11일(일)~10월 16일(일)

메인 기간 : 10월 8일(토)~10월 10일(월)

돈보리 리버워크

남쪽의 중심 도톤보리 주변은 현재 전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구리코 간판을 보며, 도톤보리 강을 유람하는 뱃놀이는 인기 있는 액티비티다. 또한 다양한 라이브와 이벤트가 돈보리 리버워크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오사카성

오사카의 랜드마크인 오사카성에서는 오사카의 역사를 접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금빛 목조선을 타고 성안의 해자에서 천수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크루즈 '황금 고자부네(黄金の御座船)'가 운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오사카성 항구부터 나카노시마 도심부까지 사계절 오사카를 즐길 수 있는 크루즈가 있다.

물의 도시 오사카 공식 홈페이지 http://www.suito-osaka.jp/

오사카 · 빛의 향연

오사카의 빛을 상징하는 이벤트인 '오사카 · 빛의 향연'. 이 행사는 오사카의 주요 도로인 미도스지를 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하는 '미도스지 일루미네이션(御堂筋イルミネーション)'과 물의 도시 오사카의 대표 지역인 나카노시마를 무대로 펼쳐지는 'OSAKA 빛의 르네상스(OSAKA光のルネサンス)'를 중심으로 오사카 각지를 빛으로 장식한다.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정면, 월 태피스트리(Wall Tapestry) 특별공연(작년 모습)

미도스지 일루미네이션 2016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이들이 모이는 우메다와 난바(なんば). 두 곳을 잇는 오사카의 주요 도로인 미도스지의 은행나무 가로수 길이 일루미네이션으로 화려하게 장식된다. 2015년 1월에는 '가장 많은 가로수에 일루미네이션을 장식한 거리'라는 세계기록이 인정되었다. 더욱이 작년부터 실시 구간을 더욱 연장하여, 전체 길이가 약 4km에 이르는 압도적인 빛의 거리가 될 것이다.

OSAKA 빛의 르네상스 2016

물의 도시 오사카의 대표 지역인 나카노시마에서는 'OSAKA 빛의 르네상스 2016'이 개최된다. 국가중요문화재인 오사카시 중앙공회당에서는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을 실시한다. 또한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大阪府立中之島図書館) 정면벽을 스크린으로 하는 빛의 예술작품 '월 태피스트리(Wall Tapestry)' 특별공연이 개최된다. 그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오사카 · 빛의 향연'은 이 외에도 오사카 각지에서 다양한 빛의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오사카 · 빛의 향연 2016]

개최 기간 : 2016년 11월 20일(일)~2017년 1월 9일(월요일, 공휴일)
오사카 · 빛의 향연 공식 홈페이지 http://www.suito-osaka.jp/

미도스지 일루미네이션 2016

개최 일정 : 2016년 11월 20일(일)~ 2017년 1월 9일(월요일, 공휴일)
점등 시간 : 17:00경~23:00
개최 장소 : 미도스지(한신마에 교차로~난바 니시구치 교차로) 약 4km

OSAKA 빛의 르네상스 2016

개최 일정 : 2016년 12월 14일(수)~12월 25일(일)
개최 시간 : 17:00~ 22:00
개최 장소 : 오사카시 청사 주변~ 나카노시마 공원
※개최 전 프리뷰 점등 실시(일부 콘텐츠만)
11월 20일(일)~12월 13일(화) 17:00~23:00

(집필: 오사카부, 협력: CLAIR, Seoul)

‘일본문화원 리포터 2기’ 활동 시작!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주최, 후원하는 행사와 다양한 일본문화를 취재하여 SNS를 통해 소개하는 자원봉사자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2015년 처음 모집한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대학생 및 현직 신문기자, 파워 블로거 등으로 구성되었고, SNS와 본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4월 ‘일본문화원 리포터(2기)’를 모집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을 최종 선발했다. 지난 7월 9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약 8개월 간 매력적인 일본문화와 일본 관련 정보를 취재하여 SNS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문화원 리포터(2기)가 취재한 글은 현재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bunkain)에서 연재되고 있다. 지난 7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 ‘제14회 일본가요대회’ 본선 현장과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생생하게 취재한 기사를 비롯해 일본문화원 리포터가 직접 나가사키(長崎)에 다녀와서 쓴 ‘일본 도시 이야기’, 나고야(名古屋)의 명물인 ‘나고야메시(名古屋めし=나고야 음식)’ 등 일본여행에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정보나 추천 여행지, 재미있는 일본문화를 소개한 글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오는 9월 24일(토)~25일(일) 도쿄 히비야 공원(日比谷公園)에서 개최될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Tokyo’의 부스 운영 및 현지 취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문화원 리포터가 직접 참여한 한일축제한마당 관련 소식과 체험담도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일본문화원 리포터의 활약을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기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공보문화원 칼럼
매직 퍼포먼스 히투 & 이즈마 인터뷰

마술로 관객과 같은 꿈을 나눌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남성 퍼포머 히투(Hi2, 사진 우측)와 세계마술대회 참가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매지션 이즈마(izuma, 사진 좌측)의 인터뷰를 통해 마술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오늘 공연은 어땠나

Hi2 너무 즐거웠고, 즉흥적인 퍼포먼스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izuma 분위기도 따뜻하고 관객 반응도 좋아, 매우 즐거웠습니다. 공연 중 무대 아래로 내려갔는데, 감동한 얼굴로 올려다보는 관객들의 반응이 기뻤어요.

이름의 유래는?

Hi2 본명에, '히'라는 글자가 두 번 들어간 것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도록 여러 가지로 궁리한 결과 'Hi2'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Hi2'를 검색하면 바로 제가 나옵니다!

izuma 특별한 유래는 없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가 붙여준 인터넷상의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술과 다이도게 등을 시작한 계기는.

Hi2 초등학교 때, 마술사 Mr. 마릭이 마술의 트릭을 공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원리가, 마술로서 이렇게나 재미있어진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며, 마술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izuma 어렸을 때부터 판타지나 마법을 좋아했고, 마술을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대학생 때, 선배의 권유로 마술 동아리에 들어가며, 마술사를 목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 있는 퍼포먼스나 관객에게 인기 있는 퍼포먼스가 있다면.

Hi2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만(웃음), 포크 퍼포먼스는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포크 마술에 흥미가 있었는데, 우연히 은으로 된 식기로 사람을 만든 작품을 보고, 이를 이용한 마술을 하면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술사로서의 저를 있게 한 것은 이 퍼포먼스 덕분입니다.

本日の公演はどうでしたか。

Hi2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し, パフォーマンスを行うことができ, 面白かったです。

izuma 雰囲気も暖かく, 観客の反応も良く, 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公演中に舞台の下に下りましたが, 感心した顔で見上げてくれる観客の反応が嬉しかったですね。

名前の由来は。

Hi2 本名に,「ひ」の文字が二回入ることと, ネットで検索するとすぐ引っかかるように色々と工夫した結果,「Hi2」という名前が生まれました。今, Googleで「Hi2」を検索すると, 一発で私が出てきます!

izuma 特別な由来はありません。中学生の時に友達が付けてくれたインターネット上のハンドルネームをそのまま使っています。

マジックや大道芸などを始めたきかっけは。

Hi2 小学生の時に, マジシャンのMr. マリックさんがマジックの種明かしを公開する場面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単純なことがマジックとしてここまで面白くなるというところに大きな魅力を感じ, マジシャンになりたいと思いました。

izuma 小さい頃からファンタジーや魔法が好きで, 手品を見ることも好きでした。大学生の時に, 先輩の勧誘で手品サークルに入り, 手品師を目指すようになりました。

自信のあるパフォーマンス, または観客に人気のパフォーマンスがあれば。。

Hi2 あまり自信はないですが (笑), フォーク · パフォーマンスは好評です。以前からフォーク · マジックに興味があったところ,

izuma 꽃, 우산, 등불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등불의 그림자를 이용한 마술은 생소하기도 하고, 고요한 설경과 꽃이 떨어질 때의 덧없음 같은 일본적인 감성을 살려 무대에서 표현하고 싶어,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외국 분들도 제 의도를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Hi2 한국은 8번째 방문이지만, 한국인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힘차고 밝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izuma 한국은 마술 분야에서 앞서 있고, 세계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리는 마술 관련 대회와 컨벤션에 참가하기 위해 4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인은 근면하고, 매우 자신에게 엄격해서, 마술도 언어도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술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Hi2 마술은 실로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마술을 모두와 공유하고, 함께 좋아하게 되면 합니다.

izuma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공상이나 상상하기를 좋아했는데,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무대로 가져와 마술로 보여 주면, 관객도 내가 생각하는 마법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마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Hi2 확실하게 정해진 목표는 없지만, 마술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싶습니다. 같은 몸짓도 나라에 따라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하면서, 내 퍼포먼스의 재미를 모두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izuma 마술을 감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술은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람의 마음에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퍼포먼스에 감정을 실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たまたま銀の食器を使って人を作った作品を見て, これを取り入れたマジックをしたら面白そうだと思いました。マジシャンとしての今の自分がいるのは, このパフォーマンスのおかげです。

izuma 花, 傘, 灯篭を使ったパフォーマンス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灯篭の影を使ったマジックは珍しいですし, しいんとした雪景色や花が散る時の儚さのような日本の感覚を上手く取り入れて舞台で表現したいと思い, このパフォーマンスを作り出しました。外国の方も私の意図を良く理解し, 共感してくれ, とても嬉しく感じています。

韓国に対する印象, 思い出に残っている点等があれば。

Hi2 韓国は８回目の訪問ですが, 韓国の方は常に自信にあふれているという印象を受けます。「自分は自分だ」というパワフルで明るいイメージがありますね。

izuma 韓国は手品分野で進んでいて, 世界でも一番レベルが高いそうです。そのため, 韓国で開かれる手品関連の大会やコンベンションに参加するため, ４回くらい訪れました。韓国の方は勤勉で自分にストイックなので, マジックも言語も全て熱心に勉強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手品の魅力は何だと思いますか。

Hi2 マジックは正に「私が好きなこと」であり, 私が面白いと思うマジックを皆さんと共有し, 一緒に好きになっ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

izuma 同じ夢を見られるところです。小さい頃から空想や想像することが好きでしたが, 他人には見えないけど, 私の頭の中にあるものを舞台に持ってきて手品としてみせると, 観客も私が考える魔法のイメージ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ように同じ夢を一緒に分かち合え, 心の中でつながれるところが手品の魅力だと思います。

今後の目標や韓国での活動計画があれば。

Hi2 はっきりとした目標はありませんが, マジックは言葉がいらないので, 世界の様々な場所でパフォーマンスをしたいです。同じジェスチャーでも国によって意味が伝わったり, そうでない場合があります。そのため, 様々なところで公演をしながら, 自分のパフォーマンスの面白さを皆さんと共有していきたいです。

izuma 手品をエモーショナルなものにしていきたいです。手品はその現象を見せることも重要ですが, 加えて人の心にも訴えていきたいです。どうすれば人々が感動し, パフォーマンスに感情を乗せられるのかを研究し, それを広めていきたいです。

모리모토 총영사 부임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한 모리모토 야스노리입니다.
1981년 6월, 외무성 한국어 연수생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래 4차례 총 12년간 서울에서 근무했지만, 부산 근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몇 번 와본 적은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총영사관, 바다에 면한 항구 도시 부산에서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라현 출신으로 주변에 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일상 생활을 바다와 함께 한다는 것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거리는 제가 대학시절을 보낸 요코하마와 공통점이 많아, 앞으로 여러 가지를 발견해 가고 싶습니다.
35년 전, 처음 여행으로 방문한 부산은 바다와 접한 언덕 위에 작은 집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밤 길에는 네온사인 조차 없어서 아주 어두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근대적 빌딩 숲으로 거듭나면서, 도시의 분위기도 밝고 세련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 같은 급성장을 이룬 부산 사람들의 에너지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주말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광안리 해변을 산책하거나 금련산 청소년수련원까지 산길을 오르고, 전망대에서 멋진 광안대교의 경치를 만끽했습니다.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임진왜란 당시의 옛 전쟁터나 에도시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장소, 좀 더 멀리 경주 신라시대 유적 등도 탐색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 전부터 일본과 교류가 있던 부산이지만, 현재도 한국의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九州)와는 이미 하나의 경제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많은 분들로부터 일한 교류의 확대가 부산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 특히 규슈는 부산 지역과의 경제 교류 확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 후쿠오카 포럼 같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일한 양국의 학자와 비즈니스맨, 공무원 등 많은 관계자가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에게 부산은 15년 전인 2001년 1월, 신오쿠보역(新大久保駅)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승객을 구하려다 희생된 이수현 씨의 출신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귀한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양국 간의 우호 친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총영사
모리모토 야스노리(森本康敬)

2016 여름일본문화소개전 일본의 세시풍속전을 마치고

7월 25일(월)부터 8월 6일(토)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에서 열린 '2016여름일본문화소개전 : 일본의 세시풍속전'이 12일동안 역대 최대인 4,600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일본의 연중행사를 인형과 의상, 소품, 음식모형 등으로 소개하는 전시와 일본의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체험코너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중학생을 인솔하고 이곳을 찾은 한 선생님은 "일본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일본의 여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히는 등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여름일본문화소개전에서는 3가지 특별행사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일본전통음악 미니콘서트와 전통악기 고토를 직접 배우고 연주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이다. 워크숍에 참가했던 한 모녀 참가자는 "고토라는 일본의 전통악기를 직접 연주할 수 있어 좋았다"는 감상을 들려주었다.

두 번째 특별행사는 전통방식의 설탕공예인 아메자이쿠다. 한국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이 행사에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아메자이쿠시(飴細工師 : 설탕공예가)인 미즈키 다카히로(水木貴広) 씨가 뜨거운 물엿 반죽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동물과 캐릭터를 만드는 모습을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실연회는 이틀간 실시되어 약 350명이 관람했다.

특별행사 그 세 번째는 '히투(Hi2) & 이즈마(izuma) 환상의 매직쇼'였다. 남성과 여성, 현대와 과거, 빛과 어두움이 대비되는 약 한 시간의 공연이 순식간에 끝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재미를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뜨거운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러버링크 프로젝트 2016

한일 민간문화교류, 한일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 심포지엄

음악이나 퍼포먼스 같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활동단체 리버링크 프로젝트 실행위원회의 '리버링크 프로젝트 2016'의 일환으로 '한일 미술가 작품 교류전'과 '심포지엄'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기타큐슈 고쿠라와 한국을 잇는 양국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매년 새로운 문화창조를 시도하고 있다.

일시 10월 18일(화)~21일(금)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내용 ○한일 미술가 작품 교류전 : 10월 18일(화)~21일(금)
○심포지엄 〈한일 민간 문화교류 – 오늘과 앞으로〉 : 10월 21일(금) 14:00~
○오프닝 행사 : 10월 18일(화) 14:00~, 18:30~
한일 재즈 라이브 공연
라이브 페인팅 · 붓글씨 퍼포먼스
주최 러버링크 프로젝트 실행위원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주후쿠오카 대한민국총영사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교토 기타노텐만구(北野天満宮)는 예쁜 매화꽃이 피는 신사로 유명하지만 한달에 한번 매달 25일, 이곳에서 놀라운 시장이 펼쳐진다.

이른바 '덴진상(天神さん)'. 도리이(鳥居)가 서 있는 입구에서 부터 신사의 경내는 사람들과 줄지어 늘어 선 잡화노점으로 골동품 및 기모노, 그릇, 수공예품 등을 팔고 있는 약 1,000 개의 이 잡화노점은 온통 볼거리와 먹거리 천지로 신사의 경내는 그야말로 북적대는 시장바닥!

이렇게 생각했던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그곳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다.

*히나인형- 여자아이의 성장을 기원하며 전시하는 인형

매달 21일은 도지(東寺)에서 '고보상(弘法さん)'이라는 이름의 벼룩시장이,

매달 15일은 햐쿠만벤지온지(百万遍知恩寺)에서 '햐쿠만벤상(百万遍さん)' 이라고 하는 수제작품 시장 '데즈쿠리이치(手作り市)'가,

매달 4째 일요일엔 세계문화 유산인 가미가모 신사(上賀茂神社)에서 '가미가모 데즈쿠리이치(上賀茂手作り市)' 가 열린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아주머니 덕분에 오늘 하루 잘~ 놀았네. 교토는 구석구석 숨어있는 보석이 가득. 잠깐! 야마나카 아주머니의 고급 쇼핑정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그것 참 꿀팁일쎄~ 다음 달 25일엔 아침 일찍부터 쇼핑 질!~ㅋㅋ

maidoookini@naver.com